지구화시대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에 관한 소고

- 중국 청도(青島)를 중심으로 -

구지영*

〈차 례〉

1. 문제제기
2. 이동의 기제와 생활세계의 확장
3. 생활세계의 거점 연해도시, 청도
   1) 국가 배치기(1992년까지)
   2) 노동시장 유입기(1992~2000년)
   3) 분화기(2000~2007년)
   4) 정착기(2008년 이후)
4. 계층분화와 사회이동
5. 결론

【국문초록】

한중수교 후 조선족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거주지를 떠나 중국의 연해부나 한국, 일본 등지로 이동했다. 본고에서는 현지조사 자료에 근거해 조선족이 형성하는 초국적 생활세계와 근대적 경계의 변동양상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첫째, 이동의 기제와 생활세계의 확장이다.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는 대개 인적 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361-2008-1-B00001)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각 장소들은 기능적 분산으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둘째, 청도 사례를 통해, 하나의 종족집단이 무연(無緣)의 장소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주 초기 한국(인)과 관련된 고용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조선족은 2000년대부터 기업가, 서비스 자영업자, 전문기술자와 사무원, 단순육체노동자 등으로 분화되었다. 한편, 2000년대 말부터 한국인 인구의 감소로 종족경제권이 침체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는 조선족의 초국적 생활세계의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후, 사람, 자본, 물자 이동의 창구로 자리 잡은 중국의 연해부의 구조적 위상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접촉 공간에서는 조선족과 같은 경계인이 매개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활용하여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기가 용이했다. 셋째, 도시 이주자들은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집단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경계들을 구성·재구성하면서 내외적으로 배제와 포섭하고 반복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계층을 통해 종족범주를 넘어서는 경계구성의 양상과 사회이동의 기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경계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부단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제어: 지구화시대, 동아시아, 청도, 조선족, 경계인, 이동, 계층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조선족(이하 조선족)이 구성하는 생활세계[1]를 통

1) 생활세계란 반복되고 순환적인 일상으로, 추상화 과정 전의 구체적인 삶의

해, 근대적 경계[2]의 변동양상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동아시아는 국가재건과 이념대립 속에서 경계를 넘는 이동과 교류의 침체기로 접어든다. 특히 중국은 호구제도(戶口制度)와 단위제도(單位制度)에 의한 도농분할정책으로 사람들의 생활세계를 제도적으로 장소에 정박시켜왔다. 1970년대 말까지 중국 인구의 80% 정도가 농촌에 거주했는데, 이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도농 간 소득 격차와 계층적 구분은 분명했지만, 지역 안에서는 비교적 균질한 생활세계를 유지해왔다고 볼 수 있다(이민자, 2003). 1978년 개혁개방 후, 중국은 '연해주도의 외향적 발전모델'(이근, 2003:75) 하에 부분적이고 편파적인 시장화를 추진한다. '세계의 공장'으로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중국 연해부는 지난 20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며, 동아시아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이것은 중국 내의 구조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며 경제적 상호의존을 심화시키고 있다. 요컨대 경제구조로만 보면, 오늘날 동아시아는 (국민국가 단위가 아니라) 중국의 연해부와 한국, 일본, 대만이 결합된 해양아시아와 내륙부라는 두 개의 공간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김원배, 2009:34).

세계를 말한다. 따라서 다양한 경계(국경, 국민, 종족, 계급 등)를 넘어서 구성되는 세계이며, 그 경계에 대한 개인의 전략이 응축되어 있다. 생활세계에 대한 관심은 과학적이고 객관적 태도로 인간의 정신 현상까지도 분석할 수 있다고 보는 근대적 학문관에 대한 비판이며, 인간의 주체성과 직관적 삶에 대한 환기를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 생활세계를 통해, 선험적이고 자의적으로 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고 자연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근대적 경계선이 이동하는 사람들에 의해 활용·변용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김왕배, 2000:78-131; 杉田敦, 2011:17-49).

2) 근대적 경계란 크게 공간적 경계와 인적 경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국가, 도시, 지역 등의 장소 범주를, 후자는 국적, 종족, 계층 등의 집단 범주를 일컫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족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까지 한반도와 동북지역을 왕래하며 유동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과정에서 공민이라는 사회적 지위와 동북삼성의 자치공간을 공인받으며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범주화된 집단이다. 이후 인구의 90%가 동북삼성의 조선족 집거지에 거주하며 비교적 동질성이 강한 민족공동체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동아시아의 정치경제적 변동 속에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거주지를 떠나 중국의 연해부나 한국, 일본 등지로 이동한다. 이러한 조선족의 이동은 소위 '농민공(農民工)'이라 일컬어지는 중국의 도농간 인구이동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조선족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경계인(marginal man)[3]으로, 이들의 이동에는 한국과 일본이라는 종족적, 문화적 요소가 초국가적 형태로 개입되어 그 양상이 일반적인 농민공과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필자는 1999년부터 한국, 중국, 일본에서 조선족의 이동과 정주에 대한 질적 조사를 수행해왔다.[4] 하지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해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족이라는 종족집단을 그 유동성과 영역성을 포함해서 실체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

3) 조선족은 한반도에 종족적·문화적 기원을 가진 중국 국민이다. 한중수교 전의 이동과 교류의 침체기에는 대체로 한족과의 관계 속에서 소수민족이라는 단선적인 사회문화적 경계를 구성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황해를 둘러싼 산동반도(山東半島), 요동반도(遼東半島), 한반도를 중심으로 초국적 공간이 형성되면서, 양국을 잇는 과경민족(跨境民族), 즉 경계인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이 부단히 공론화되고 있다.

4)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대구의 공단지역에서 조선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6년까지 총 14개월간 중국 청도에서 조선족과 한국인이 구성하는 종족경제권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씩 청도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하며 이후의 변화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2013년 1월에 일주일간 보충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조선족의 이동경로를 따라 한국의 수도권, 일본의 오사카 등지로 조사지역을 확대하기도 했다.

서도 언급된 것처럼, 조선족의 이동은 광역에 걸쳐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모두 조사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이해에 도달할 수 없다(박광성, 2008:36). 설령 이 지역들을 모두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경계인으로서의 조선족을 명확히 그려내기는 힘들다. 예를 들어, 이들은 대개 중국여권을 가지고 이동하지만, 문화적으로는 한국인과 가까워 정주지에서의 일상은 종족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김현미, 2008, 예동근, 2010b). 아울러 이동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요소들이 부과되면서 공적인 범주로는 조선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상호부조형 이동을 통해 조선족의 내적 결속력은 강화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현지조사와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오늘날 조선족의 이주와 정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첫째, 이동의 배경에 있는 구조적 변동에 관한 것이다. 1990년 이후 동아시아의 인구이동은 한국, 일본, 대만의 노동집약적 산업화의 종결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것으로 주로 정치경제적 교류의 심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원배, 앞의 책:7-27). 둘째, 이동하는 조선족과 특정 장소의 관계이다. 이동하는 사람들을 특정 장소로 흡인하는 구조적 측면, 이동을 허용·규제하는 제도적 측면, 미시적 차원의 영역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장소 구성의 다양한 양상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커뮤니티를 둘러싼 경계 짓기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적, 종족뿐만 아니라, 직업, 출신지, 학력, 계층 등의 내적 경계에 대한 구성과 재구성 과정이 여기에 포함된다.

본고는 이 연구문제 중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지면이 한정된 관계로 구조적 변동을 전면적으로 논하는 것은 생략하고, 우선 이동의 기제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광역의 생활세계를 통해 오늘날 동아시아의 장소 간 관계의 일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네트워크형) 생활세계의 주요 거점으로 자리 잡은 청도(靑島)를 사례로, 하나의 종족집단이 무연(無緣)의 도시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그려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청도 조선족의 일상에서 구성되고 있는 내적 경계를 계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계층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구분되고 영역화되는 과정이다. 이 논의를 통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는 범주화된 경계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적, 국가적, 국지적 변동 속에서 정치적·문화적 틀로 제도화된 것이고,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자들의 실천에 의해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이라는 것, 즉 우리는 경계 속에 살지만, 경계를 구성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조사 협력자 일람표

번호	이름	출생연도	성별	출신지	학력	이주 시기	이주 전 직업	이주 직후 직업
1	CG	1972	여	흑룡강성	중졸	1995	농업	한국기업
2	KM	1971	여	흑룡강성	대졸	1997	향진기업	조선족식당
3	KY	1945	남	흑룡강성	?	1994	한국노무	직업소개소경영
4	KC	1982	남	흑룡강성	중졸	2003	향진기업	한국식당
5	AS	1984	남	흑룡강성	중졸	2004	건설노동	한국식당
6	OG	1984	여	흑룡강성	중졸	2004	무	한국식당
7	KK	1966	여	흑룡강성	대졸	1988	대학생	교사
8	GH	1944	여	길림성	중졸	1985	주부	주부
9	HD	1965	남	길림성	중졸	1988	군인	군인
10	SM	1969	남	길림성	대졸	1998	대학강사	한국기업
11	HM	1964	남	흑룡강성	대졸	1991	교사	한국기업
12	KH	1963	남	길림성	대졸	1995	국영기업	기업가
13	KG	1960	남	길림성	중졸	2002	한국노무	한국식당경영
14	LH	1977	여	길림성	대졸	2003	북경삼성	청도한국영사관

2. 이동의 기제와 생활세계의 확장

오늘날 조선족의 인구이동에는 산업화과정에 따른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뿐만 아니라, 지구화 과정에서 비롯되는 국경을 넘는 이주, 모국으로의 역이주, 가족·친족 네트워크를 통한 연쇄이주 등 시공간을 초월하는 다양한 이주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등록인구와 거주인구의 차이로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중국 연해부에 약 50~55만 명(박광성, 2010:361), 한국에 약 46만 명[5], 일본에 약 5~6만 명[6]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즉 지난 20년간 총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원거주지를 떠나 타지로 이동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이동의 기제와 그 양상을 사례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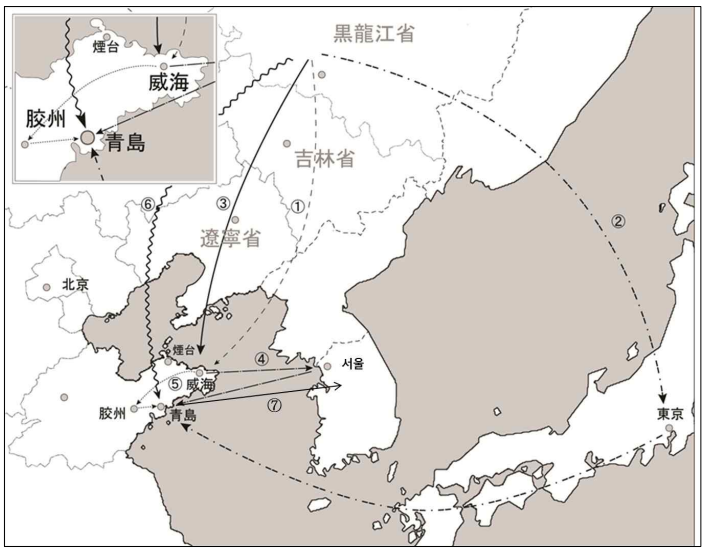
사례1)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가족의 이동과 정주: CG씨의 사례

CG씨는 흑룡강성(黑龍江省)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집안일을 돕다가, 1992년에 결혼했다. 그 해 같은 마을에 살던 CG씨의 이모가 위해(威海)로 가서 숙박업을 시작했다(경로①). 1994년에 CG씨의 남편이 일본으로 노동이주를 떠나 동경(東京)의 가방 공장에 취직했다(경로②). 이듬해 CG씨는 여동생과 함께 이모가 있는 위해로 왔다(경로③). CG씨는 위해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다가 그 회사의 파견으로 1999년에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났다(경로④). 도착 직후 직장을 이탈해 고향

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 현재 한국 거주 외국인 주민수는 모두 140만 9,577명이며 이중 조선족 수는 전체 외국인 주민의 40.4%인 570,158명에 달한다. 여기서 한국국적 취득자(68,612명)와 자녀(39,278명)를 제외한 중국국적 조선족의 수는 462,268명이다(행정안전부, 2012).

6) 재일조선족은 거의 중국여권을 소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국적 취득 후 한국여권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인구통계로는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세계금융위기(2007년 이후)와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 11일)으로 본의 아니게 귀국을 선택한 조선족도 많지만 미성년자를 포함하면 약 5~6만 명이 체류 중이며, 이들 중 4~5만 명이 관동(關東)과 관서(關西) 지방인 동경과 대판(大阪)에 거주한다(권향숙, 2012).

친구의 소개로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CG씨의 동생은 교주시(膠州市)에 있는 한국식당의 관리자로 취직했다(경로⑤). 동생은 자신이 모은 돈과 CG씨에게 빌린 돈으로 2002년에 청도시 시남구(市南區)의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림 1] CG씨 가족의 이동과 정주

2003년에 귀국한 CG씨는 고향에 집을 짓고 어머니가 돌보던 아들을 데리고 동생이 있는 청도로 왔다(경로④). 동생과 함께 의류사업을 시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모은 돈을 모두 소진했다. 이후 시남구에 있는 한국식당의 관리자로 일했다. 2004년부터 고향에 있던 어머니가 청도로 와서 집안일과 육아를 돕기 시작했다(경로⑥). 2005년에 CG씨의 남편이 일본에서 귀국하면서 관리하던 한국식당을 인수했다(경로②). 2008년에 성양구(城陽區)의 아파트를 구입했다. 2008년부터 시남구의 한국인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결국 2010년에 가게를 정리했다. 2013년 현재 여동생은 사업 자금을 모으기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이며, CG씨는 성양구에서 조카를 돌보며 새로운 일을 찾고 있다(경로⑦).

CG씨 가족의 사례를 통해 오늘날 조선족 이동의 몇 가지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첫째, 가족·친지를 주축으로 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이주한 가족이 다른 가족의 이주와 정착에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주에 필요한 비용을 한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이 제공했다. 둘째, 분산 거주하면서도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다. 아울러 송금(送金)이나 차금(借金) 등의 금전거래가 빈번했다. 셋째, 장소에 따라 거주 목적이 분명했다. 한국과 일본 등 국외지역은 조선족 사회 전체의 중요한 수입원이자 이주와 정주에 드는 자금을 모으는 장이고, 동북지방은 노동력의 공급지이자 재생산을 위한 장이었다. 또 한국인들의 이동으로 종족경제권이 급성장한 중국의 연해도시는 새로운 정주지로 가족이 재결합하는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었다. 특히 청도는 한국인 인구가 가장 집중된 곳으로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외국에서 자본을 가지고 귀국하는 조선족에게 중요한 정착의 발판이 되었다. 한편, 이러한 가족·친지를 통한 이동뿐만 아니라 동북삼성과 연해도시 간에는 전문중개업자를 통한 이주도 이루어졌다. 주로 초기 이주자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사례2) 전문중개업자를 통한 이주: KM씨

KM씨는 2년 과정의 단기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합이빈(哈爾濱)의 흑룡강비료공장에 취직했다. 24살에 합이빈 출신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은 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속된 고부갈등으로 결국 남편과 별거하기에 이르렀다. 별거 중에 남편은 (시어머니의 권유로) 일본계 의류회사에 취직해서 청도로 이주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KM씨는 전문 중개업자를 통해 1997년에 청도로 온다. 청도까지의 교통비와 직업 소개비를 포함해 중개업자에게 인민폐 500원을 지불했다. 이것은 당시 한 달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연고가 없는 청도로 오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KM씨가 이주할 때는 약 500호 규모의 마을에서 50명이 신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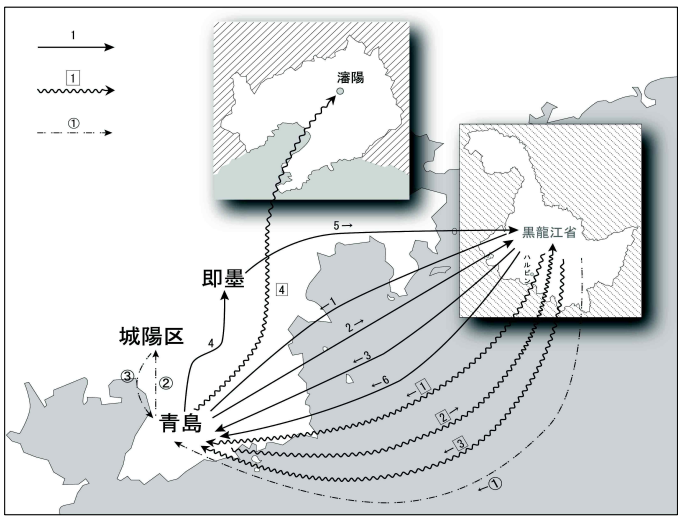
그러나 청도역에 도착하자마자 중개업자가 사라져, 청도에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KM씨는 청도역에서 무작정 버스를 타고 시내를 돌다가 우연히 조선족들의 집거지인 이촌시장에서 내렸다. 거기서 '연변식당'이라는 간판을 보고 들어가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한동안 그 가게에서 일하면서 남편과 연락이 닿기를 기다렸다. 남편과 재회한 후, KM씨는 한국 기업에 취직했다.

전문중개업자는 기존의 인맥에 비해 신뢰성이 낮지만, KM씨처럼 연고가 없는 조선족에게는 중요한 이동수단이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청도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조선족 KY씨에 따르면, 당시에는 중개업자가 직접 동북지방이나 내륙으로 가서 조선족뿐만 아니라 한족 노동자들을 집단적으로 데리고 왔다고 한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한국기업의 수요가 많은 만큼 동북지방에는 유휴노동력이 넘쳤기 때문에 중개가 잘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을 통한 구인·구직이 성행하기 시작했고, 동북지방의 노동인구가 거의 유출되어 수요가 있어도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중개업은 사업적 가치가 거의 없어졌다.[7] KY씨는 "이제 동북에서 나올 사람은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직장 옮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옛날같이 외지에서 데려오기는 힘들다"고 했다.[8] 2006년 당시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사람

7)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조선족이 주로 이용하는 직업소개 사이트 하오산동(http://www.haoshandong.net)과 차이나통(http://www.chinatong.net)이었다. 이 사이트에는 중국 전역의 구인·구직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8) KY씨는 1990년대 초반에 친척방문으로 한국에 입국해서 일을 했고, 그때 모은 돈으로 1994년에 청도에 직업소개소를 열었다. 직업소개를 해서 모은 돈으로 1996년부터 청도에 아파트를 사기 시작해 2006년 당시 네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2000년 이후에는 청도에서 직장을 옮기는 사람들을 소개하기 위해 시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별로 소득이 없어 2005년 4월에 한국인에게 명의를 넘기고 일을 그만두었다. 2013년 현재 한국기업에 다니는 아들 가족과 함께 손자를 돌보며 청도에 살고 있다. 큰

들은 대개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젊은 층으로, 이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직장과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매우 유동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림 2] KC씨와 친구들의 이동(2003-2006년)

사례3) 직장과 거주지의 유동: KC씨의 사례

KC씨는 중학교 졸업 후, 고향의 작은 종이공장에서 일했다. 당시 월급은 인민폐 300원이었다. 2003년 2월에 친구를 따라 청도로 와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시남구의 한국식당에 취직했다(경로①). 식당일이 지겨워져 2005년 봄에 고향친구의 소개로 성양구의 한국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지만(경로②), 일도 재미없고 월급도 적어 두 달 만에 그만두고 다시 그 식당으로 돌아왔다(경로③). 2006년 당시 인민폐 1,2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 그는 인근에서 보기 드물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한 경우로, 주변에서는 일손이 부족하면 그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때

딸은 결혼해서 상해(上海)에 살고 있고, 작은 딸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마다 고향에서 친구를 불렀다. 2004년 식당에 일손이 모자랄 때 고향에서 AS씨를 불렀다(경로3). AS씨는 어머니가 한국인과 재혼해 청도에 거주했기 때문에, 2001년 청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무른 적이 있었다(경로1·2). 그는 KC씨가 일하는 식당에서는 반년 정도 일한 후, 다른 친구의 소개로 즉묵(卽墨)에 있는 구두공장으로 옮겼다(경로4). 2006년 2월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가(경로5), 두 달 후에 다시 KC씨의 요청으로 시남구의 한국식당으로 왔다(경로6). 또 KC씨는 2004년 8월에 고향에서 친구 OG씨를 시남구의 한 식당에 소개했다(경로①). 하지만, 그녀는 식당일이 힘들어 며칠 만에 그만두고 청도에서 놀다가 고향으로 돌아갔다(경로②). 2005년에 다시 청도로 와서 직업소개소를 통해 소개받은 식당에서 일하다가(경로③), 2006년 9월에 고향친구의 권유로 심양으로 가서 한국회사에 취직했다(경로④).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의 생활은 매우 유동적이며 이들의 이동범위는 중국 전역에 걸쳐있다. 이들이 일을 그만두는 이유는 다양한데, 예를 들어 OG씨는 친구와 놀고 싶은데 식당을 쉴 수가 없어서 일을 그만두었다. KC씨는 막연히 식당일이 지겨워서 일을 그만두었다. AS씨는 광동의 대학에 입학하게 된 여동생이 광동으로 가기 전에 청도에 들렀을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일을 그만두었다. 한편 당시에는 연해도시 어디를 가나 조선족 일손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금방 새 일을 구할 수 있었다. 또 일이 단순하고 숙련도와 지속기간에 따라 월급이나 직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약하기도 했다. KC씨와 같은 단순육체노동자들에게 고향은 친구와 놀거나 쉬러 가는 곳이고, 청도와 같은 연해도시는 장래에 정착하고 싶은 곳이었다. 아울러 연해도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는 일을 계속하거나 월급을 저축하기보다는, 한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 가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 생활세계의 거점 연해도시, 청도

2011년 현재 청도에는 약 15만 명, 산동성 전체로는 약 20만 명의 조선족이 거주한다. 이것은 요녕성(遼寧省)의 조선족 인구와 맞먹는 규모로, 청도에 새로운 도시형 커뮤니티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9] 지금까지 중국 내 조선족 도시형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북경(北京)과 청도가 중심이었다(박명규, 2005, 양영균, 2006, 예동근, 2010a·2010b, 윤인진, 2003, 이종학, 2003). 이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조선족의 이동을 가속화시킨 배경에 한국(인)의 영향이 있다는 것, 이주 후의 삶에서도 종족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 그리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문화적·교육적 측면에서 주류사회로의 동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특징이자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본 절에서는 청도 조선족 커뮤니티를 한중수교 이전까지의 국가배치기, 한중수교에서 2000년까지의 노동시장 유입기, 한국인과 조선족 인구가 급증하는 2000년에서 2007년까지의 내적 분화기, 그리고 한국인 사회가 축소되고 유동인구가 감소하는 2008년 이후의 정착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 배치기(1990년까지)

중국은 1950년대 말부터 호구제도(戶口制度)와 단위제도(單位制度)를 통해 도농 간의 인구이동을 억제해왔는데, 이것은 1978년까

9) 2008년까지 청도시 조선족 호적인구는 15,057명, 임시거주증(暫住證) 보유자는 39,403명으로 공식적인 정주인구가 54,460명이다. 2000년 제5차 인구조사 통계와 비교하면 8년간 호적과 임시거주증을 가진 상주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구와 실제 거주인구 사이에는 차이가 매우 크다. 박광성은 현지조사를 통해 2008년 현재 청도에 15만 명 정도의 조선족이 거주하고 있다고 추산했다(박광성, 2012:59-66).

지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지되었다(이민자, 2003:219). 이 시기에 도시로 이주할 수 있는 극소수의 방법 중의 하나가 군인이나 대졸자가 국가에 의해 공공기관에 배치되는 것이었다. 한중수교 전에 청도로 온 조선족도 대개가 대졸자나 군인이었다. 이 시기의 청도 조선족 인구는 100명 남짓이었고, 산동성 전체로도 1000명을 넘지 않았다고 한다.[10)]

> 사례4) 초기 이주자①: 1988년에 이주한 대졸자 KK씨
>
> KK씨는 북경의 중앙민족대학에서 조선문학을 전공했다. 1988년에 '산동성무역위원회' 소속의 '대외경제무역학교'에 조선어 강사로 배치를 받아 남편과 함께 이곳으로 왔다. 정식 학과에 배치 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과의 교류를 준비하기 위해 영어과 학생들에게 시범적으로 조선어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해 청도에는 10명 정도의 조선족이 왔는데, 대개 이공계 출신이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산동성 전체로도 조선족이 많지 않아 직장 내 한족 중에서 조선족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많았다. 남편은 얼마 후 학교를 그만두고 한국 액세서리 회사에 취직했고, KK씨도 1991년에 그 회사로 옮겼다. 이후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무역회사를 설립했다. KK씨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청도조선족기업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이후 무역을 하는 남편과 함께 광주로 이주했다.

KK씨와 같이 당시 국가의 배치를 받은 사람들은 조선족 사회의 엘리트들로 주로 국유기업이나 교육기관에서 일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한국기업이나 일본기업의 중국진출로 새로운 노동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들 중 대부분이 외자기업으로 옮겨갔다. 다음 두 사례를 통해 이 시기 이주자들의 선택과 변화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0) '청도과학문인협회' 전임 회장 LM씨의 인터뷰에서(2013년 1월 18일)

사례5) 초기 이주자②: 군인 남편을 따라 이주한 GH씨

GH씨는 해군이었던 남편을 따라 1985년에 청도로 왔다. 이주 초기에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하다가 아이가 성장하면서 토산품 가게에 취직해 7년간 일했다. 고객은 주로 한국인이나 일본인 관광객이었다. 남편은 1990년에 제대한 후 국영 여행사에서 8년간 일했다. 이후 여행사를 그만두고 한국과 관련된 여러 사업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주 당초에는 노산구(老山區)에 살다가 시남구가 개발된 후 이사했다. 2001년부터 시남구의 아파트를 임대해 한국인 대상의 민박을 경영했다. 2006년에는 비자 연장과 관광 안내를 겸하면서 민박의 규모도 아파트 두 채로 확장했다. GH씨가 청도에 온 후 길림성에서 여동생과 남편 형제들이 모두 이주했다. 2006년 당시 여동생과 함께 민박을 운영하고 있었다.

중국사회에서 군인은 혁명 당시 인민해방군으로 획득한 사회적 위신뿐만 아니라, 군대가 일종의 직업훈련장으로도 기능했기 때문에, 취업할 때 여러 측면에서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가난한 농촌 청년들에게 군대는 면학과 직업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佐々木, 2005: 43). 청도에 온 조선족 군인들도 GH씨의 남편처럼 제대 후에도 국영회사에 취직하는 등의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이들도 한중수교 이후에는 대개 기존의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뛰어들었다. 그 중에는 GH씨의 남편처럼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HD씨처럼 사영기업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례6) 초기 이주자③: 1988년에 군인으로 배속된 HD씨

HD씨는 농촌에서 태어나 '집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했기 때문에' 군대를 선택했고, 1988년에 청도로 왔다. 1991년에 제대한 후 한국 액세서리 공장에 취직해 3년간 일하고 같은 업종으로 독립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2006년 당시 직원 300명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그는 제조업 외에도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증식시켰다. 2000년 이후 운동회나 노래자랑 등 각종 조선족 행사에 거금을 기부하면서 청

도 조선족 사회에 성공한 기업가로 이름을 알렸다. 청도조선족기업협회의 부회장과 조선족골프협회의 회장을 역임했다.

국가배치기에 청도로 온 이주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 이후 시장경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당초의 일을 그만두고 외자기업에 취직했다. 둘째, 이후의 조선족 이동의 초석이 된다. 청도에서는 사례5처럼 고향에서 가족이나 친지가 연쇄적으로 이주해 사업을 돕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다. 셋째, HD씨(사례6)처럼 틈새경제를 활용해 기업가로 성공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넷째,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인과 조선족이 대거 유입되면서 경쟁이 심해져, 혹은 지나친 투자로 실패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다섯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청도 조선족 사회의 구심점이 되고 있다.

2) 노동시장 유입기(1992~2000년)

전술한 것처럼 조선족과는 무관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청도에 대량의 이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국기업과 한국인의 이주로 종족경제권이 형성되었기 때문이었다. 1980년대 말부터 민간투자 형식으로 시작된 한국기업의 청도 진출은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1992년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1997년의 금융위기로 짧은 정체기를 겪지만 이후 다시 회복되어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0년 2월까지 청도의 한국기업은 2,200개로 집계되었지만, 비공식적인 투자나 소규모 투자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한국인 대상의 식당과 술집, 주재원 가정의 가사도우미와 중국어 가정교사 등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다양한 산업들이 생겨나고, 조선족의 노동 수요가 급증한다. 당시 동북지방에는 '산동에

가서 일한다(到山東打工)'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산동성으로의 이주는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었다. 또 대부분의 조선족이 언어적·문화적 우위를 활용하여 관리직으로 취직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국의 농민공(農民工)[11]과는 다른 형태로 도시에 정착할 수 있었다. 필자가 조사한 시남구의 서비스업체의 경우, 조선족이 한족보다 30% 정도 많은 월급을 받고 있었다.

사례7) 노동시장으로 유입①: 대학 강사 SM씨

SM씨는 연변대학을 졸업한 후, 대학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길림성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취직했다. 그 회사의 파견으로 위해로 와서 6년간 일한 후 회사를 그만두었다. 이후 농산물을 취급하는 무역업을 시작하면서 청도로 이주했다. 중국 전역에서 농산물을 모아 청도항을 통해 한국이나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였다. 초기투자비용은 1992년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있던 어머니의 지원을 받았다. 어머니는 2004년에 귀국해서 연변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SM씨는 청도로 올 것을 권했지만, 어머니는 '조선족은 자기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오히려 어머니는 SM씨가 연변으로 돌아와 학교 일을 하면서 지금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는 2005년까지만 해도 연변으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연변은 좁고 경제적으로도 뒤쳐져있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아이들 교육환경도 청도가 좋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2008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 파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청도를 떠나 동북지방으로 돌아갔다.

---

11) 중국 국무원연구실(國務院研究室)이 발표한 중국농민공조사연구보고(中國農民工調研報告)에 따르면 전국 농민공 인구는 약 2억 명이며, 이들의 월급은 인민폐 500-800원선에 집중되어 있다(半島都市報, 2006/4/17). 2005년 말까지 청도의 농민공 취업인구는 약 87.5만 명으로 2004년 대비 약 11.8만 명(15.6%) 증가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청도시 근교의 농촌 출신이다. 청도시 통계국에 따르면, 이들 중 제조업 종사자가 약 67.6만 명으로 53.7%를, 건축업 종사자가 12.2만 명으로 56.2%을 차지했다. 국유나 대기업 취업자는 적고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종사자들은 증가 추세에 있었다(半島都市報, 2006/3/29).

이 시기 이주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동북삼성 조선족 집거지의 구심점이었던 관료나 전문기술자 등의 엘리트들이 연해부의 노동시장으로 대거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연변조선족 남자인구를 예로 들어보면, 2000년에는 10.6%가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진 후인 2010년에는 그 비율이 4.5%까지 떨어졌다(김두섭・류정근, 2013:137).

사례8) 노동시장으로 유입②: 조선족학교 교사 HM씨

HM씨는 연변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다가, 1991년에 한국합자완구회사에 취직하면서 청도로 왔다. 근무기간 동안 경영 노하우를 배우고 거래 인맥을 형성했다. 1996년 5월에 한국인 지인에게 5만 달러의 자본금을 빌려서 회사를 설립했다. HM씨에 따르면 당시는 인건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면 무조건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한다. 1999년에는 수출액이 600만 달러를 넘어섰으며, 성양구에 첨단 설비를 한 새 공장을 세웠다. 2006년 당시 회사의 품질이나 디자인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중간 상인을 두지 않고 직접 미국이나 유럽의 주문을 받고 있었다. HM씨는 청도사회에서 성공한 기업가의 대명사로, 조선족기업협회 회장, 연변대학 총동창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청도 조선족 사회의 구심이 되고 있었다.

이처럼 1990년대 말부터 한국기업에서 독립해 사영기업가가 되는 조선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3) 분화기(2000~2007년)

대기업에서 영세한 자영업체까지 규모는 다양하지만, 1990년대까지는 청도 조선족의 대다수가 한국(인) 사업체의 고용노동자로 일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청도 조선족 사회의 분화가 다양한 형태로 가시화된다. 가령 1997년 12월에 38명으로 발기한 조선족기업협회는 2000년대가 되면서 회원수가 약 160명으로 늘어

난다. 아울러 이들이 주축이 되어 조선족 운동회[12]나 노래자랑 등을 개최해 기업 홍보나 조선족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을 도모한다.

사례9) 청도 조선족 사회의 성공모델

KH씨는 연길의 국영기업 건설부문에 소속되어 한국, 북한, 러시아 간 무역사업을 여러 차례 시도했다. 1980년대에 사업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에도 갔지만, 당시에는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한편, 1994년부터 시행된 증치세(增値稅) 때문에 세금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무역업을 그만두고 제조업으로 업종 전환을 시도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중국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돌아다녔다. 한국의 실내장식 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부엌가구를 비롯한 장식자재를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한국에서 기계를 들여와 1995년에 (북경이나 상해보다 인건비가 싼) 청도로 왔다. 2006년 당시 5개의 계열사와 연간 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KH씨는 청도의 소수민족 운동회나 노래자랑과 같은 행사를 회사 후원으로 개최할 뿐만 아니라, 장학금 지급 등으로 지역사회에서도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HD씨(사례6)와 HM씨(사례8)와 함께 KH씨는 청도 조선족 사회의 성공모델로 거론된다. 이들은 골프나 각종 간담회를 통해 한국 공무원이나 기업가들과도 자주 교류하고 있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한국의 금융위기 당시 귀국한 조선족들이 청도로 재이주해 서비스 자영업층(個體工商戶)을 형성한다.

---

12) 예를 들어 2002년 10월에 열린 조선족운동회의 경우, 청도시민족종교국의 인가 하에 공식적으로는「청도시 '21세기배' 소수민족전통항목운동회(青島市'21世紀杯'少數民族傳統項目運動會)」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당시 시정부로부터 인민폐 14만원, 조선족기업협회 구성원들이 16만원을 모았다.

사례10) 서비스 자영업자 KG씨

KG씨는 길림성의 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다. 성인이 된 후 새로운 일을 찾아 연변으로 갔지만 '배운 것도 없고, 경험도 없어서' 취직하기가 힘들었다. 6남매 중 큰형이 리비아로 노동이주를 떠난 것에 자극을 받아,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1994년에 한국으로 갔다. 한국에서는 타일공장에서 일하다가 곧 그만두고, 건설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다. 2년 6개월 동안 3천 6백만 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고 1997년에 귀국했다. 우선 인민폐 2만원을 들여 고향집을 고쳤다. 장사를 해볼 생각으로 남방으로 갔지만 거듭 실패해서 남은 돈을 금방 다 써버렸다.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자본을 모으러 한국행을 결심하고 수속을 위해 2002년에 둘째 형이 있는 청도로 왔다. 하지만, 당시에는 한국으로 가기가 어려운 시기여서 수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형제들에게 인민폐 6만원을 빌려 이창구(李滄區)에 한국식당을 열었지만, 반 년만에 폐점했다. 한국회사에 취직해 1,200원의 월급을 받으며 일하기도 했지만, 만족할 수 없어서 그만두었다. 이후 소형차 한 대를 빌려 운송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두에 배가 도착하면 물건을 실어서 시내로 옮기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한국인들과 인맥이 형성되면서 한국인 학원이나 교회의 셔틀버스를 운행했다. 2006년 당시 아들과 고향 친척들을 청도로 불러 사업 규모를 확장해서(차량 13대), 관광 안내까지 겸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귀국한 조선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이전부터 청도에 거주하고 있던 가족의 권유로 재이주했다. 둘째, 귀국 후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업자금이 부족하면 외국에 있는 가족·친지에게 빌리거나 다시 한국으로 노동이주를 떠나려고 했다. 셋째, KG씨(사례10)처럼 반드시 종족경제권 내의 사업만을 계획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어를 비롯한 사회문화적 장벽과 경험 부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종족경제권 내의 사업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넷째, 고용노동자가 되는 것보다 자영업을 선호해서 취직을 하더라도 장기간 일하지 않는 경향이 강했다.

또 2000년대 중반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이나 첨단기술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에 취직한 젊은이들이 청도로 유입되기 시작한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했다.

사례11) 북경 중앙민족대학을 졸업한 LH씨

LH씨는 중앙민족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 대기업(S사)의 북경사무소에서 일하다가 연길에 있는 부모님의 소개로 청도의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LH씨는 청도로 이주하면서 한국총영사관으로 직장을 옮겼다. 2006년 당시 주5일 근무하고 휴일은 남편과 보낸다. 특별히 조선족 모임에 참여하지 않지만 일상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일은 없다. 대학 때부터 한국인 친구가 많아서 한국에 자주 놀러갔으며, 영사관에서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학부모들과 가끔 식사를 하기도 한다. 청도에는 집값이 비싸 아직 구입하지 못했지만, 현재 직장이나 거주지를 옮기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곳에 정착하고 싶다고 했다.

4) 정착기(2008년 이후)

2006년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청도의 외자유치 방침이 '맹목적 투자유치(招商引資)'에서 '선택적 투자유치(招商選資)'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노동집약적 중소제조업에 대한 우대가 축소되고 임금 및 각종 세금이 인상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이 오르면서, 한국기업의 (비정상적) 철수가 증가하고 투자 건수도 줄어든다.[13] 또한 청도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정

13) 2000년에서 2007년까지 청도 한국기업의 비정상적 철수가 206건이었는데, 2007년에는 한 해 동안만으로도 87건을 기록하면서 그 정점에 이른다. 2006년에서 2007년까지 누적채무는 인민폐 2억 원, 해고 직공수는 15,000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업종은 주로 악세서리(30.5%), 봉제(16%), 피혁(13.6%) 등의 노동집약적 기업이며, 종업원 50명 이하인 기업이 55.3퍼

치경제적 위상이 하락하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청도를 떠났다(구지영 2011a). 2011년 청도 거주 한국인의 공식인구는 48,200명으로 2008년 대비 21% 정도 감소했다. 매년 30만 명이 넘는 왕래자들의 수도 2006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주청도대한민국총영사관 2011). 한국인 이주 사회가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종족경제권 내의 고용시장뿐만 아니라 소규모 서비스업도 연쇄적으로 위축된다. 앞서 소개한 한국인 대상의 서비스업을 경영하던 CG씨(사례2)와 GH씨(사례5)도 2008년 이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고 있었다. 아울러 단순육체노동의 수요도 급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의 청도 조선족 사회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인구 규모로 보아도 2011년 현재 청도 거주 조선족이 약 15만 명으로 2008년 대비 11% 증가했는데(주청도대한민국총영사관 2011), 이것은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제외하고는 산동성이 조선족 인구의 최대밀집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한국기업이나 한국인에 대한 '의존적 적응단계'에서 '자립적 적응단계'로 이행했다고 진단한다(朴光星, 2012:61).

사례3-1) 부동산 경영자 KM씨

사례3에서 소개한 KM씨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시남구 H화원 한인 집거지에서 소규모 부동산을 경영했다. 당시 H화원에는 한국인 유동인구가 많아 아파트와 상가 계약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KM씨는 언어적·문화적인 면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을 매개하며 계약의 성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갈등까지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 2006년 당시 KM씨는 H화원 일대의 아파트와 점포 중 약 40% 정도를 소개할 정도로 사업적으로 정착했다. 2006년에 자신이 모은 돈과 한국에서 가사도우미를 하고 있던 어머니의 돈을 합쳐 시남구의 신축 아파트를 두 채 구입했다. 2009년부터 청도의 한국인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시남구의 한국인 집거지가 소멸되면서 KM씨는 부동산을 그만

센트를 차지한다(김원배, 위의 책: 117).

두었다. 2013년 현재 KM씨는 그동안 모은 자산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면서 지내고 있었다. KM씨는 청도에 이주한 지 17년이 넘었고 스스로 '청도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청도 호구는 없다. 호구에 대해서는 "돈을 주고 산다고 들었는데 필요하다면 사겠지만, 생활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다"고 했다. 불편한 점을 굳이 말하라면 아들이 입시를 칠 때 호적지인 동북에 가야하는 것 정도라고 했다.

KM씨처럼 청도의 조선족은 한국인과 현지인을 사회문화적으로 매개하면서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하지만, 호구제도의 존속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자라는 사회적 위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청도의 조선족 사회가 '안정' 혹은 '정착'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이다. 하나는 청도가 조선족의 초국적 생활세계의 중심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소개한 조선족들은 대개 청도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주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은 외국인이며, 설령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해도 단순노동을 하면서 영원히 주변인으로 살아야한다는 것을 사회적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 고향인 동북삼성의 경우, 기존의 기업들마저도 경영난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잉여 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기 힘든 경제적 한계를 스스로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들고 있었다. 따라서 발전도상에 있는 중국의 연해도시, 그 중에서도 여전히 한중 교류의 중심에 있는 청도를 새로운 정주지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전에는 한국에서 모은 자금으로 동북지방에 집을 지었다면, 2000년대 중반부터는 청도에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안정'과 '정착'의 또 다른 측면은 유동인구의 감소이다. 2000년대 중반까지 조선족의 이동 패턴은 이주라기보다는 유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하지만, 종족경제권의 쇠퇴로 인해

조선족 노동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KC씨와 같은 단순육체노동에 종사하던 이들은 동북지방으로 돌아가거나 한국으로 재이주했다. KC씨와 AS씨도 2013년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다. 이 배경에는 2007년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14]로 조선족의 노무입국이 쉬워졌다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이전 조선족 커뮤니티의 거점이었던 이촌시장에 있던 50여개에 가까운 직업소개소는 거의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몇 곳에서는 현지의 직업소개보다 한국 노무를 알선하는 쪽으로 업무를 전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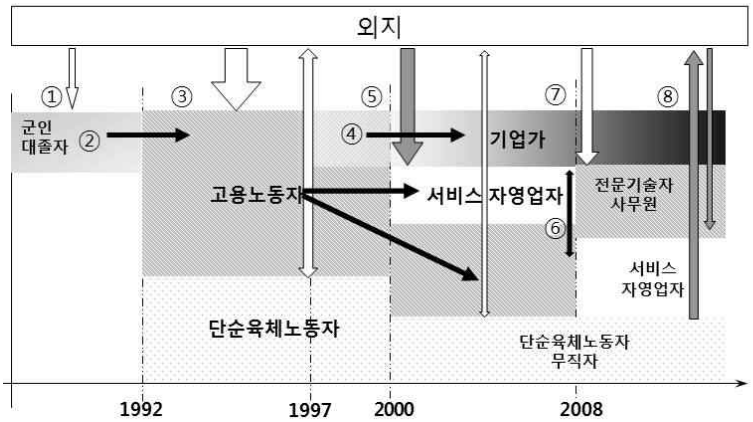
4. 계층분화와 사회이동

개혁개방 전까지 중국은 탈계층화 정책과 도농 간 인구이동의 통제, 국유제와 집단소유제 등으로 비교적 단순한 계층구조(노동자, 농민, 관료 및 지식층)가 유지되었고, 계층 간의 소득격차도 크지 않았다.[15] 조선족 사회도 한중수교 전까지는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국유와 집체단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경제구조에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4) 2007년 3월부터 시행된 방문취업제는 25세 이상의 조선족과 CIS의 한인 중에서 한국에 연고가 있는 경우는 무제한으로, 무연고일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해마다 정해진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한국 입국을 허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발급되는 비자(H-2)는 5년 동안 유효하며 입국 후 최장 3년까지 체류를 인정하고 기간 내 출입국의 자유도 보장했다. 방문취업제가 시행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약 33만명의 조선족 노동자가 한국으로 건너왔다(구지영, 2011b).

15) 1970년 전까지 최고소득계층(국가·사회관리자)의 소득은 최저소득계층(농업노동자)의 2.7배이고, 1970년대까지도 전자가 후자의 3.8배에 불과했다. 개혁개방 전에는 국가·사회관리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업노동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계층, 즉 전문기술자, 사무원, 상업서비스직 및 산업노동자의 소득수준 격차는 크지 않았다(이중희, 2006:261).

이 시기에는 대졸자나 군인 등 극소수의 사람만이 새롭게 도시로 진입할 수 있었다(그림3의 ①). 한편,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 경제교류의 심화 과정에서 조선족은 경계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위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로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기존의 계층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조선족 사회의 변화를 요약하면 대량의 인구이동과 생활세계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족 사회의 구심이었던 관료나 전문기술자들을 비롯한 노동 가능 인구의 대부분이 중국 연해부와 한국, 일본 등지로 이동해 시장경제 영역으로 유입되었다(그림3의 ③). 아울러 한중수교 이전에 연해도시로 이주한 군인이나(사례6) 대졸자들도(사례4) 이 대열에 합류했다(그림3의 ②). 이러한 조선족 사회의 계층은 1990년대 말부터 더욱 역동적으로 분화된다.



<그림 3> 조선족의 유입과 계층 분화

* 흰색 화살표:외지와의 왕래/회색 화살표:한국과의 왕래/검은색 화살표:내부 이동

본 절에서는 청도 조선족 사회의 계층분화와 사회이동의 기제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중국사회과학원이 분류한 중국의 10대 계층[16]을 청도 조선족 사회의 상황에 맞춰 기업가(사영기업가 및 전문경영자), 서비스 자영업자(개체공상호), 전문직 종사자(전문기술자 및 사무원), 단순육체노동자(실업·반실업자 포함)로 재분류했다.

첫째, 조선족 기업가는 1990년대 말부터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해, 2000년 이후 기업가협회 등의 조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가시화된다(그림3의 ④). 앞의 사례들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은 이주 전부터 기업가였거나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청도에 와서 우연한 기회를 잡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것은 오늘날 조선족 사회에서 하나의 성공모델이 되었다. 아울러 이 기업가들은 외지인이자 소수민족이라는 불완전한 사회적 위치의 청도 조선족들이 운동회, 노래자랑, 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다방면의 지원을 하면서 이주민 사회의 정치경제적 구심점이 되고 있다.[17]

둘째, 서비스 자영업자(개체공상호)이다. 업종, 규모, 경영 상태는 다양하지만, 대개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자본금을 모아 귀국하거나 외국에서 일하는 가족·친지들에게 돈을 빌려 창업하는 경

16) 중국사회과학원 연구팀은 10대 계층을 각각 우세지위계층, 중간위치계층 및 기초계층으로 구분한다. 즉 국가·사회단체관리자, 전문경영자, 사영기업주는 우세지위계층으로, 전문기술자, 사무직, 개체공상호는 중간위치계층으로, 상업·서비스직, 산업노동자, 농업노동자, 실업·반실업자는 기초계층으로 구분하고 있다(이중희, 2005:234).

17) 일례로 대학교수나 문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청도과학문인협회'는 1년에 세 네 번 정도 학술행사를 개최하는데, 그 비용은 대개 조선족기업의 협찬을 받는다고 했다. 역대 회장을 역임한 LM교수는 기업협찬을 받는 일이 회장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가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청도과학문인협회' 전임 회장 LM씨의 인터뷰에서(2013년 1월 18일)

우가 많았다(그림3의 ⑤). 전문기술자나 사무원보다 사회문화적 자본은 적지만, 종족경제권 내의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2000년대 중반까지는 실수입이 훨씬 많았다. 또 이들 중에는 '적수공권의 성공모델'을 인생의 목표로, 기회를 잘 잡아 기업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셋째, 전문기술자나 사무직 종사자이다. 경계인인 조선족은 학력과 나이를 막론하고 직장 내에서 한국인과 현지인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족보다 30% 정도 높은 월급을 받았다. 또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시간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변해왔다. 2000년까지는 청도 유입 조선족의 대부분이 고용노동자였고, 일의 성격에 따라 관리직이나 사무직, 그리고 단순육체노동직으로 구분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용노동자 중에서 기업가층이 형성되고(그림3의 ④)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서비스 자영업층으로 유입되면서, '적수공권의 성공모델'이 하나의 전형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 때까지만 해도 이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매우 유동적이었다.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우선 이들이 일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관리직이라고는 하지만 일의 숙련도에 따라 승진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일의 조건이나 대우를 높이는 수단으로 직장을 옮겼다. 또 청도의 한국기업은 절반 이상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인데, 이들 대부분이 정부지원의 감소와 더불어, 임금, 지가,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경영상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직장을 찾아 옮기는 경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적수공권의 성공모델을 꿈꾸며 기회가 있으면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강했다(그림3의 ⑥). 한편, 2000년대 중반 이후 청도에는 대기업 및 첨단기술산업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했고 기본급도 꾸준히 상승했다. 따라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장래가 보장된 기업 혹은 공공기관에 취직

한 젊은이들이 청도의 고용노동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한다.[18] 또 한국과 일본 등지에서 일한 부모세대의 도움으로 현지에서 대학교육을 받거나 유학을 다녀온 세대들이 연해부로 유입되어 정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2008년 이후 한국인 인구의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비스 자영업 시장이 급격히 축소된다. 요컨대 이 시기부터는 전문기술자나 사무직 종사자가 서비스 자영업자보다 경제적·사회적으로 안정된 계층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육체노동자이다. 사례3의 KC씨와 그의 친구들처럼 직장이나 거주지를 자주 옮겨 다니며 매우 유동적인 생활을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지 않고, 문장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아울러 부모가 한국에서 일하면서 송금한 돈으로 경제적 어려움 없이 성장한 세대이기도 해 조선족 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고 소비하는 '문제 집단'으로 지목되기도 한다(박광성, 2008:159). 청도에서 단순육체노동의 수요가 많았던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잦은 이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쉬웠지만, 종족경제권이 위축되는 2008년 이후에는 일자리가 급감한다. 가령 한국기업들은 단순육체노동의 경우 조선족보다 임금이 싼 한족을 선호하며, 관리직의 경우에는 보다 전문화된 노동력을 찾기 때문에 이들의 입지가 전반적으로 약해졌다. 반면,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방문취업제가 시행되어 노무입국이 쉬워지면서 이들 중 다수가 한국으로 재이주했다. 이들의 목표는 발전된 연해

18) 1999년부터 중국에서 대학교육 규모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대학 졸업생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구체적으로는 1995년에는 중국의 대학 입학률이 6.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19%로 급속히 증가한다. 이 시기 조선족고등학교의 대학진학률도 60-70%로 상승한다. 대학교육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졸업생들의 취직을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은 무효화되었으며 졸업생들은 노동시장에 진출하여 스스로 직장을 구해야했다(박광성, 2008:100).

도시에서 자영업자로 정착하는 것인데, 한국노무는 이 꿈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2006년 당시 KC씨는 “지금 받는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작은 집도 한 채 못 산다. 부모님은 한국에 가서 일하라고 한다. 한국 갔다 와서 청도에서 사업하고 싶다”고 했다. 2013년 현재 KC씨는 한국에 체류하며, 그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다(그림3의 ⑧).

5. 결론

냉전체제의 붕괴와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변동 속에서 조선족은 경계인이라는 사회문화적 위치를 활용하여 인구의 절반 이상이 원거주지를 떠나 중국의 연해부나 한국, 일본 등지로 이동했다. 지금까지 현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족이 형성하는 초국적 생활세계와 근대적 경계의 변동양상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첫째, 이동의 기제와 생활세계의 확장이다. 이동 초기에는 전문중개인과 같은 반(半)제도적인 기제가 작용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이동은 대개가 가족·친지 등 기존의 인간관계가 중심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또 네트워크형 생활세계의 거점이 되는 각 장소는 기능적 분산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 한국과 일본 등의 국외지역은 중요한 수입원이자 이동과 정주에 드는 비용의 공급지였고, 원거주지인 동북지역은 노동력 공급원이자 가족 재생산의 기능을 담당했다. 그리고 청도와 같은 연해지역은 오늘날 조선족의 제2의 고향으로, 차세대를 위한 정착지로 자리매김 되고 있었다.

둘째, 청도 사례를 통해 하나의 종족집단이 무연(無緣)의 장소에 정착하는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한중수교 이후 한국(인)과 관련된 고용노동시장으로 유입된 조선족은 2000년대부터 기업

가, 서비스 자영업자, 전문기술자와 사무원, 단순육체노동자 등으로 분화되어왔다. 한편, 2000년대 말부터 한국인 인구의 감소로 종족경제권이 침체기로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도는 조선족의 초국적 생활세계의 중심으로 정착하고 있었다. 이 배경에는 '세계의 공장'으로 초국적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된 후, 사람, 자본, 물자 이동의 창구로 자리 잡은 중국의 연해부의 구조적 위상이 있을 것이다. 또 이러한 접촉 공간에서는 조선족과 같은 경계인이 매개자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공고히 하며 경제적 자본을 축적하기가 용이했다.

셋째, 이들은 조선족이라는 하나의 집단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경계들을 구성·재구성하면서 내외적으로 배제와 포섭하고 반복하고 있었다. 여기서는 계층을 통해 종족범주를 넘어서는 경계구성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조선족은 사회 이동에 있어서 경계인이라는 자신의 위치를 부단히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이러한 계층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 성공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외지인이자 소수자로서 이들의 사회이동 가지는 한계점을 엿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구지영, 「지구화시대 한국인의 중국 이주와 초국적 사회공간의 형성: 칭다오(青島)의 사례를 통해」,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a, pp. 421-457.

_____, 「이동하는 사람들과 국가의 길항관계: 중국 조선족과 국적에 관한 고찰」, 『동북아 문화연구』 27,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1b, pp. 15-39.

권향숙,「조선족의 일본 이주와 에스닉 커뮤니티: 초국가화와 주변의 심화사이의 실천」,『역사문화연구』44,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2, pp. 3-34.

김두섭・류정균,「연변 조선족인구의 최근 변화: 1990, 2000년 및 201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의 분석」,『中蘇硏究』36-4,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타, 2013, pp. 121-149.

김왕배,『도시, 공간, 생활세계: 계급과 국가 권력의 텍스트 해석』, 한울, 2000.

김원배,『동아시아 초국경적 지역 형성과 도시전략』, 국토연구원, 2009.

김현미,「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 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문화인류학』41-2, 한국문화인류학회, 2008, pp. 39-77.

박광성,『세계화시대 중국조선족의 초국적 이동과 사회변화』, 한국학술정보, 2008.

_____,「초국적인 인구이동과 중국조선족의 글로벌 네트워크」,『재외한인연구』21, 재외동포재단, 2010, pp. 357-374.

_____,「小數民族流入人口的權益訴求与城市民族工作: 基于對青島市朝鮮族群体的實地調查」,『民族問題硏究』 127, 黑龍江民族叢刊, 2012, pp. 59-66.

박명규,「북경의 조선족: 개별 심층면접 자료의 분석」, 권태환 편,『중국 조선족사회의 변화: 1990년대 이후를 중심으로』, 2005, pp. 231-264.

양영균,「베이징 거주 조선족의 정체성과 민족관계」, 문옥표 편,『해외한인의 민족관계』, 아카넷, 2006, pp. 79-130.

예동근,「글로벌시대 중국의 체제전환과 도시종족공동체 재형성: 북경 왕징 코리아타운의 조선족 공동체 사례 연구」,『민족연구』, 한국민족연구원, 2010a, pp. 159-185.

_____,「종족성의 자원화와 도시 에스닉 커뮤니티의 재구성: 북경 왕징(望京) 코리아타운 조선족결사체를 중심으로」,『동북아문화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0b, pp. 531-547.

_____,「농촌에서 도시로: 재중동포 기업가 형성과정」,『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2, pp. 5-22.
윤인진,「중국 조선족의 도시이주, 사회적응, 도시공동체: 청도 사례 연구」,『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학회, 2003, pp. 49-80.
이 근,「중국의 경제기적과 한국의 선택」, 김원배・장경섭・김형국 편,『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출판, 2003, pp. 75-96.
이민자,「중국의 도농관계와 도시화: 도시공간의 이중적 분할」, 김원배・장경섭・김형국 편,『중국의 오늘과 내일』, 나남출판, 2003, pp. 215-230.
이종학,「조선족의 도시 이주와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3.
이중희,「중국에서의 중간계층의 성장과 구조변화」,『국제지역연구』 9-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5, pp. 221-250.
_____,「중국 중간계층의 특성 및 상태의 변화」,『국제지역연구』 10-3,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2006, pp. 251-279.
주청도대한민국총영사관,「재외동포현황」, 2011, http://qingdao.mofat.go.kr/kr/sub.html?code=0603&pmode=view&no=7(검색일: 2013년 2월 20일)
행정안전부,「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12, http://www.mospa.go.kr/gpms/ns/mogaha/user/nolayout/main/nationDisplay.action(검색일: 2013년 2월 20일)
『半島都市報』 2006. 3. 29, 2006. 4. 17.
佐々木衛,「中國朝鮮族に見られる移動と階層文化、エスニシティ」, 奥山眞知・田巻松雄・北川隆吉編,『階層・移動と社會・文化変容』, 文化書房博文社, 2005, pp. 41-58.
杉田敦編,『守る：境界線とセキュリティの政治學』, 風行社, 2011.

A Study on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Chinese in the Age of Globalization

- A Case Study about Qingdao, China -

Koo, Ji-Young

More than a half of Korean Chinese moved to coastal areas of China, Korea, or Japan with their sociocultural status stuck on boundaries in the process of deepening economic mutual dependence of East Asia in the 1990s.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s of modern boundaries as well as transnational lifestyles of Korean Chinese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based on the locally identified data and review. First, the paper explored the mechanism of migration and the expansion of lifestyles. The migration and settlement of Korean Chinese took place mostly through human networks while each space constituting lifestyles is closely connected through functional variations. This means that overseas areas such as Korea and Japan provided important income sources and economic capital necessary for their migration and settlement while the three northeast provinces provided sources of labor and familial reproduction. Additionally, the coastal areas in China such as Qingdao have become the second hometown of Korean Chinese, recognized as the settlement for the next generations. Second, this study diachronically looked into the process of one ethnic group's settlement in a totally unknown area based on a case study of Qingdao. Korean Chinese were invited to various labor markets related to Korea from the 1990s and diversified their areas of employment into entrepreneurship, independent service providers, professional engineers, office workers, and blue-color laborers from the 2000s. On the other hand, while the decrease of Korean population since the late 2000s depressed the ethnic economy, Qingdao has become a center of transnational lifestyle of ethnic

Koreans. Third, they continuously organize and reorganize new boundaries to repeat exclusion and inclusion internally and externally rather than being confined as a group called ethnic Koreans. This study explored the aspects of boundary establishment that goes beyond the scope of ethnicity by focusing on classes. It was found that Korean Chinese had ceaselessly used their status as a people on the boundary in terms of social mobility.

Key words: Globalization, East Asia, Qingdao, Korean Chinese, Migration, Marginal man, Class

구지영
소속: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주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1번지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평생교육관 302호
전화번호: 051-410-5271
전자우편: gujida@gmail.com

이 논문은 2013년 7월 10일 투고하여
2013년 7월 31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8월 31일 게재 확정함.